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무역협상은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정부여당의 연준 의장 압박 지속
 - 미국 백악관, 연준 파월 의장 해임 계획 없음을 재확인 6월 경기선행지수는 하락
 - EU, 미국과의 관세협의를 위해 노력. 합의 실패를 대비한 보복 조치도 준비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경기 회복으로 부양책 필요성 감소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낙관적인 2/4분기 기업실적 전망, 관세 불확실성 우려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1%], 달러화 약세[-0.6%],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2/4분기 빅테크 실적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對美 관세협상 난항 가능성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 하락과 엔화 급등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1.0%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무역협상 시한 마감 근접에 따른 경기 불안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8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0.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2.9원, 0.38% 하락). 한국 CDS 약보합

		7/21일	7/18일	전일대비			7/21일	7/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05.6	6,296.8	+0.14%	국채 금리 10y	미국	4.38%	4.42%	-4bp
	유럽	546.58	547.00	-0.08%		독일	2.61%	2.70%	-8bp
	중국	3,559.8	3,534.5	+0.72%		영국	4.60%	4.67%	-7bp
	일본	휴장	39,819	-	CDS 5y	한국	24bp	24bp	-0bp
	한국	3,210.8	3,188.1	+0.71%		중국	43bp	43bp	-0bp
	달러지수	97.86	98.48	-0.64%	위험 지표	EMBI+	-	362	-
환율	유로화	1.1694	1.1626	+0.58%		VIX	16.65	16.41	+1.46%
	엔화	147.38	148.81	+0.97%		WTI유	67.20	67.34	-0.21%
	위안화	7.1694	7.1746	+0.07%	원자재	구리	561.1	557.8	+0.58%
	원화	1,388.2	1,393.0	+0.35%		금	3,397.1	3,349.9	+1.4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무역협의를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 정부여당의 연준 의장 압박 지속

-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협의를 위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 이는 무역협상에서 기한(8/1일) 내 합의가 이루어져도 보다 나은 제안을 제시하는 국가와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또한 상대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
- EU와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EU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평가. 중국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협상이 있을 것이며 중국의 이란·러시아産 석유 구매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 피력. 일본과의 무역협상도 일본 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미국을 위해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
- 한편 베센트 장관은 연준에 대해 조직 전반을 재검토하고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물가 상승이 거의 없었다며, 연준이 이러한 사실과 다른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공화당 루나 의원은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 구체적으로 연준 본부 개보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한 파월 의장의 설명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는 등 공화당의 연준 의장 공격은 지속. 다만 법무부가 이를 조사할 의무는 없는 상황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백악관, 연준 파월 의장 해임 계획 없음을 재확인. 6월 경기선행지수는 하락

-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지만, 파월 의장의 연준 운영과 정책에 대한 불만은 계속 피력하고 있다고 발언. 또한 8/1일 상호관세 협상 마감 전에 추가적인 무역협약 발표가 이어질 것이며, 일부 국가에는 관세 서한이 통보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6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98.8로 전월비 0.3% 떨어져 예상치(-0.2%) 하회. 상반기 누적 하락률이 2.8%로 작년 하반기(-1.3%) 대비 둔화 폭이 확대. 제조업 신규주문 부진, 신규실업급여 청구 증가,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

■ 미국 의회예산처, 감세법안 영향으로 향후 10년 재정적자 3.4조달러 증가할 전망

- 감세법안 여파로 향후 10년 연방 재정적자가 3.4조달러 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 또한 1천만명의 시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 이는 고물가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
- 한편 뉴욕 연은에 따르면, 6월 자동차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거부율이 15%, 7%로 전월비 하락. 해당 비율은 2월에 최고치 기록한 이후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계의 전반적인 신용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Wells Fargo, S&P500지수는 하반기에도 상승 지속 기대. 빅테크 실적 개선을 전망

- 크리스토퍼 하비에르 스트래티지스트는 연말 S&P500지수가 7,007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현 지수(6,306)에서 11% 높은 수준. 빅테크의 이익 마진 확대와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

■ EU, 미국과의 관세합의를 위해 노력. 합의 실패를 대비한 보복 조치도 준비

- 주요 언론에 따르면, EU는 협상 마감을 앞두고 미국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에 유리한 내용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다만 합의 실패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복 조치도 마련 중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경기 회복으로 부양책 필요성 감소

- 1년물 및 5년물 LPR을 각각 3.0%, 3.5%로 동결. 2/4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경기 회복 징후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다소 감소. 다만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과 내수 부진으로 연내 20bp 추가 인하를 전망(OCBC)

■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 실패. 이시바 총리는 유임 의지 표명

- 자민당이 47석을 획득, 과반(50석) 확보에 실패했으나 이시바 총리는 유임 의지를 표명. 다만 엔화 가치는 상승했는데 이는 선거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고 총리 사임 압박도 크지 않아 정치적 불안 우려가 완화되었기 때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2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및 보우먼 부의장,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소비자 신뢰 및 지출 회복 등으로 활력을 되찾기 시작 - WSI

(The U.S. Economy Is Regaining Its Swagger)

-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국가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비자지출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 하지만, 4월 급락했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6월 소매판매도 예상치를 상회. 또한, 2~4월 19% 급락했던 S&P500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아울러, 주요 은행의 양호한 2/4분기 실적은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켰고, 카드 지출 증가는 양호한 소비자지출을 방증(JPMorgan). 중소기업 가운데 44%가 연초 예상보다 서비스와 상품 수요 증가를 체감(Constant Contact). 경제는 견고한 소비, 소비자심리 회복 등으로 완만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Barclays)

■ 미국 소비지출, 최근 관련 지표는 양호하지만 관세 부담에 둔화 예상 - Financial Times

(Are US consumer running out of steam?)

- 6월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등 최근 소비지표가 양호.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구용품과 전자기전제품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관세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
-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금년에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이 지속. 구체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와 소매판매의 월간 변화율에 역의 상관관계가 발생. 이에 2/4분기 실질소비 증가율은 연율 1% 미만으로 둔화되었고, 3분기에도 이와 같은 부진이 지속될 전망

■ 미국 공화당의 인플레이션 판단 오류, 민주당의 과거 실수 반복할 가능성 - 블룸버그

(Republicans Fall Into the Same Inflation Trap as Democr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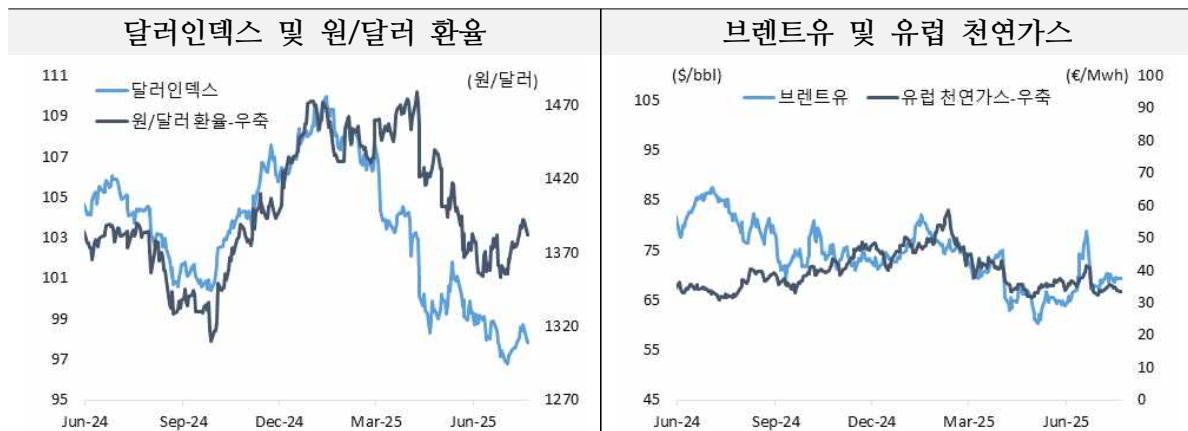
- 공화당은 연준이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와 증거를 무시하기를 기대. 그러나 이는 작년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 모습과 유사.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된 것은 올바른 분석이나, 절대적 물가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문제
-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23년 이후 '24년 10월까지 29.7% 상승. 아울러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평가. 조기 금리인하 역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 이에 연준은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적절

- **ECB의 통화정책, 미국의 관세부와 현실화 시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될 전망 - WSJ**
(Trump's Tariffs Key to Whether Anticipated ECB Hold Is an End Or A Pause)
 - ECB는 금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이는 지난 '22년 말 이래 경기침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8/1일 미국의 관세가 예정대로 인상될 경우(10%→30%) 역내 경기둔화가 발생하면서 바뀔 우려. 또한 연초 이후 달러화 대비 약 15% 상승한 유로화 가치의 상승이 지속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 이러한 요인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
- **주요국의 재정 포퓰리즘,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물가안정 노력을 위협 - Financial Times**
(‘Fiscal populism’ is coming for central banks)
- **미국 트럼프의 관세 인상, 연준 제외한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촉진 - 블룸버그**
(Trump's Tariffs Spur Global Central Bank Rate Cuts — But Less So at the Fed)
- **미국 달러화 약세, 관세 인상과 연준에 대한 압력 등으로 심화될 소지 - The Economist**
(Has Trump damaged the dollar?)
- **미국 금융권, 관세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 우려가 과도했을 가능성 - 블룸버그**
(Is Wall Street too bearish on tariffs?)
- **일본 연립 여당의 정치적 입지 약화, 미국과의 무역협상 차질 초래할 우려 - WSJ**
(Japan Election Throws a Wrench in Trade Tal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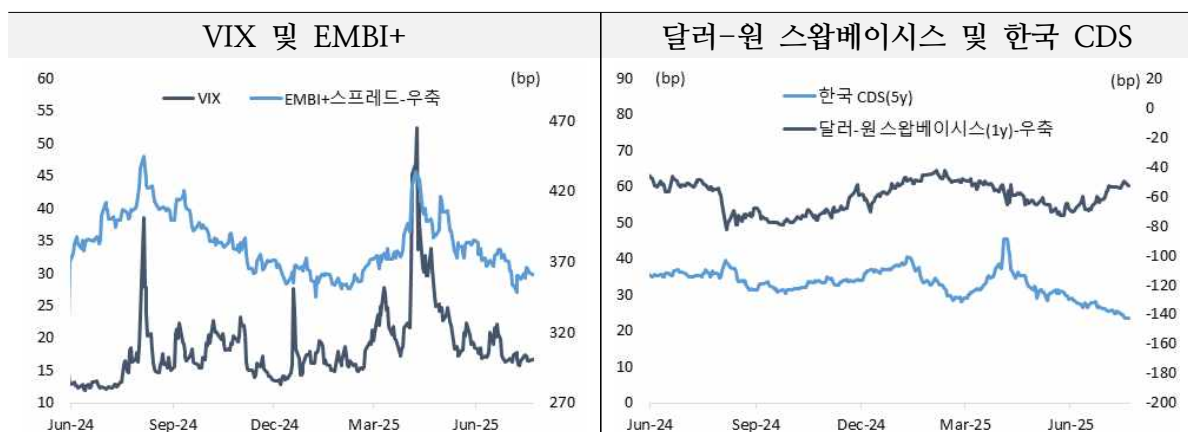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